

SBS 미디어그룹 시무식

“스타트! 턴 어라운드”

“2017년은 자기 혁신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



2017년도 SBS 미디어그룹 시무식이 1월 2일(월) 오전 10시 목동 SBS 방송센터 로비에서 SBS 미디어홀딩스, SBS, SBS A&T, SBS 콘텐츠 허브, SBS 플러스 등 그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윤석민 SBS 미디어그룹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1등 방송’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혁신하고, 생각을 턴 어라운드 하자”고 당부했다 (신년사 전문은 2면).


이어서 2017년 SBS의 새로운 캠페인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이 영상으로 공개됐고, 지상파 4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양방향 서비스의 형상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회장, 윤석민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악수와 덕담을 나누며 신년하례를 마쳤으며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진 다과회에서는 이몽모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과 박정훈 SBS 사장, 윤창현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준 보도본부장, 최혜림 앵커와 닭띠인 김인순, 권란 사원 등이 함께 시루떡 커팅을 하고 2017년의 힘찬 출발을 위해 건배를 외쳤다.

한편, 시무식에서 있었던 ‘희망내일 나눔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은 SBS 경영본부 ERP팀이 받았다. ERP팀은 사용기한이 만료된 업무용 노트북을 정비해, SBS 미디어그룹 차원에서 아프리카 희망학교와 라오스 컴퓨터 교실에 기부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개인 대상 부문은 미디어크리에이트 네트워크영업팀 나영균 부장이 받았다. 나영균 부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2017 SBS 캠페인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SBS는 2017년 연중캠페인으로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상실의 벽을 넘어 움츠린 어깨를 펴고, 다시 한 번 날아오를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힘차게 일어나봅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우리가 바라던 세상,
희망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주인인 대한민국, 건강한 나라를 위해

우리의 생각을 Turn Around합시다



윤석민 부회장 신년사

시청자 중심으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1등 방송을 만들자

SBS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아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1등 방송”을 만들시다.
2017가 열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시다.
흔들림 없이 공정 방송을 지켜냅시다.
그나마 나은, 무난한 SBS가 아닌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SBS를 만들시다.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냅시다.
TV를 넘어 세계로 나갑시다.
우리의 콘텐츠 가치를 높이고 방송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세상을 새로운 기쁨으로 채우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이 됩시다.
최고가 됩시다.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혁신합시다.
공급자 사고에서 벗어나 시청자 중심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Turn Around 합시다.

2017년, 가슴 뛰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도전의 DNA를 불러냅시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일합시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며,
열정을 바쳐,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하반기 작품상 등 시상식 개최

2016년 하반기 작품상, 특별상, 인센티브상, 시청자만족도 대상, 2016년 4분기 비전실천상, 특종상, 뉴미디어상 시상식이 1월 2일(월) 13층 SBS홀에서 개최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6 하반기
작품상
최우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안윤태)

2016 하반기 작품상 우수상

〈미운 우리 새끼〉(곽승영) | 〈닥터스〉(오충환)
〈미녀 공심이〉(백수찬) | 〈질투의 화신〉(박신우)
〈최화정의 파워타임〉(김훈중)

2016 하반기 특별상

김윤영: 〈불타는 청춘〉 작가 | 서숙향: 〈질투의 화신〉 작가
이희명: 〈미녀 공심이〉 작가 | 하명화: 〈닥터스〉 작가
조인형: 〈닥터스〉 편집감독
이민호(봄):
〈봄의 드라이빙 클럽〉 DJ
양세향:
〈양세향의 슯터뷰〉 MC



2016 하반기 프로그램 인센티브상

〈정글의 법칙〉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TV 동물농장〉 | 〈미운 우리 새끼〉 |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 〈불타는 청춘〉 | 〈두시탈출 컬투쇼〉
〈이숙영의 러브FM〉

2016 하반기 시청자만족도(ASI) 대상

〈그것이 알고 싶다〉 | 드라마본부

2016 4분기 특종상 금상

시민사회부 김광현, 이세영, 김기태
특별취재팀 박민하, 진송민, 심우섭, 김정윤, 조기호, 최우철,
임찬중, 박수진

2016 4분기 뉴미디어상 금상

정치부 안정식

2016 4분기 비전실천상

아나운서팀 정미선 | 시사교양본부 이기현
예능본부 이관원 | 드라마본부 조영민 | 직원만족팀 박찬준
편집기술팀 한광만, 조영훈 | 편집팀 조재필
UHD추진팀 김준철 | 라디오운영팀 김광수, 이윤경

SBS, 낮 시간대 종일 뉴스 체제로 전환

〈뉴스브리핑〉 2시, 4시 두 번으로 확대, 〈SBS 오뉴스〉 신설

1월 2일부터 평일 낮 시간대 뉴스가 확 바뀌었다.

SBS는 작년 12월 〈SBS 8 뉴스〉를 비롯한 주요 뉴스를 개편한 데 이어서 새해부터 평일 낮 시간대 뉴스를 확대, 강화하여 종일 뉴스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대표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3시 뉴스브리핑〉은 오후 2시, 4시로 나눠 한 시간씩 방송된다. 정치 분석쇼 〈2시 뉴스브리핑〉과 스토리가 있는 시사토크 〈4시 뉴스브리핑〉은 20년 넘게 국내외 정치 현장에서 뛰어온 주영진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

〈2시 뉴스브리핑〉은 엄선된 패널들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을 속 시원히 해부한다. 유인태 전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 등이 정국을 명쾌하게 분석하는 '정치 고수의 일침', 정치부 막내 기자들과 취재 뒷이야기를 나누는 '여의도 생존기'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정치 뉴스를 소개한다.

〈4시 뉴스브리핑〉은 당일 최고의 핫 이슈로 떠오른 인물과 발언을 통해서 시청자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본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철화 문학평론가, 서민 기생중학 박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시사 토크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오후 5시에는 〈SBS 오뉴스〉가 신설됐다. 65분 동안 진행되는 〈SBS 오뉴스〉는 〈SBS 8 뉴스〉와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진행했던 한수진 선임기자가 앵커로 복귀해, 정통 뉴스와 토크 양쪽에 강한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SBS 오뉴스〉는 초반 20분은 정통 스트레이트 뉴스를, 이후 20분은 '오 키워드' 토크 코너를 진행, 정통 뉴스와 토크의 콜라보를 선보인다. 특히, '오늘의 8 뉴스' 코너를 통해서 〈SBS 8 뉴스〉의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맛보기식으로 설명, 낮 뉴스와 〈SBS 8 뉴스〉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보도국 관계자는 이번 평일 낮 뉴스 강화에 대해 "확대되는 뉴스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낮 뉴스와 〈SBS 8 뉴스〉의 가교를 만들고, 현장감 있는 뉴스, 살아있는 뉴스로 시청자를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3부작

일과 가정 사이를 표류하는 이 시대 아빠들의 이야기

2016년 초 '엄마의 전쟁' 3부작으로 여성에게 모성을 강요하는 사회에 통렬한 비판을 가했던 〈신년특집 SBS 스페셜〉이 2017년 1월 1일(일) '아빠의 전쟁' 3부작 중 그 첫 편을 방송했다. 가사 전쟁, 육아 전쟁, 승진 전쟁, 그야말로 일과 가정 사이를 표류하며 슈퍼맨이 되지 않으면 그림자가 돼버리고 마는 아빠들은 또 다른 전쟁을 겪는다. 2017년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연출: 강범석 외)은 엄마의 사정과 다른 듯, 같은 아빠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대한민국의 아빠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명분 아래 밤낮없이 일에 빠져 살았던 아빠에 대해 자식들은 "옛날엔 아빠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열심히 일할수록 가족과 멀어지고, 여유를 부리다가는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딜레마 속에서 아빠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묵묵히 살아가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힘겹게 줄다리기를 중인 아빠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연출을 맡은 강범석 PD는 "아빠들만의 전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전쟁이다. 그 애환과 고통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2부에서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아빠에게 한 달 동안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모여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 3부에서는 텔런트 윤상현이 기자로 변신, 아빠들의 시간을 찾기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한다.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은 1월 8일(2부), 15일(3부)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SBS, 세계 최초로 차세대방송 UHD 시험방송 개시



SBS는 12월 15일 세계 최초로 차세대방송 UHD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개시하며,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시청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렸다.

SBS는 본방송 실시에 대비해 국내 UHD 방송 표준에 부합하는 방송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SBS 목동 사옥과 관악산 송신소에 구축 완료했으며, 이번 시험방송에서 목동 사옥 내 주조정실부터 IP 기반의 송출시스템을 거쳐 관악산 송신소까지 전달된 방송 신호를 국내 가전사의 UHD 수상기로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

차세대방송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실시됐던 '시험방송'이 기술 검증의 목적에서 테스트용 장비와 시스템으로 실시된 것에 비해, 이번 '시험방송'은 지난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UHD 방송 신규 허가 이후 본방송에 대비해 UHD 표준과 기술기준이 적용된 실제 방송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SBS는 시험방송 개시 직후인 12월 17일과 18일, 강릉에서 개최된 〈SU 쇼트트랙 월드컵〉을 UHD로 생중계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번 중계는 2018년 평창올림픽 주요 종목을 초고화질 차세대방송으로 중계하기 위한 테스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SBS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초고화질 UHD 중계차가 활용됐다.

SBS가 도입한 중계차에는 HDR(High Dynamic Range) 영상 촬영이 가능한 4K UHD 카메라 8대가 탑재되었고 고품질 오디오 제작을 위한 믹싱 장비도 갖춰져 있어, 향후 각종 공연, 스포츠 경기,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생방송과 녹화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최첨단 다목적 중계차로 활용될 예정이다. SBS는 앞으로의 시험방송 기간 동안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IP 기반 송출의 특징을 살려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고품격 차세대 방송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유년 신년특집 〈정글의 법칙 in 코타 마나도〉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 총출동!

〈정글의 법칙 in 코타 마나도〉(연출: 이세영)가 2017년 〈정법〉의 첫 시작을 알린다. 방송은 1월 6일(금) 밤 10시. 병만족 또한 신년특집답게 특별하게 선정됐다.

전반전 병만족은 '2017년을 이끌어갈 7인의 라이징 스타' 콘셉트로 잡았다.

김병만 족장을 필두로 아이돌 남자 부문에는 '기록소년단'으로 불리며 가요계를 점령한 방탄소년단 진, 여자 아이돌 부문에는 '광고계 블루칩' 신홍 대세돌 우주소녀 성소다. 성소는 〈정법〉역대 최연소 출연자다. 예능 부문에는 제2의 예능 전성기를 누리는 슬리피와 솔비, 배우 부문에는 '직진 국민 연하남'으로 불리며 여심을 저격한 공명, 그리고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 출연하는 〈정법〉역대 최고령 윤다훈으로 마무리됐다.

후반전 병만족 콘셉트는 '친구야 정글 가져', 일명 '정·친·소' 특집으로 구성, 평소 예능계 절친들을 모았다. 먼저 김병만 족장의 절친으로는 〈2016년 S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거머쥔 강남으로, 두 사람은 일명 '정글 커플'로 불렸다. 그



다음으로는 '개그 커플'로서 환상의 콤비를 선보인 윤정수와 김영철, '절친 커플'로는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김민석과 인피니트 성열. 마지막으로 '비주얼 커플'로는 모델들 경리와 강태오로 구성됐다.

29번째 정글은 위도 0도,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적도 선상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내 코타 마나도다. 인도네시아는 〈정법〉6년 역사상 처음으로 도전하게 된 나라로, 그중에서도 술라웨시 섬은 서태평양 해양 생물의 약 70%가 서식하는 천혜의 해양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육지에는 오직 술라웨시 섬에서만 볼 수 있는 10cm 크기인 피그미안경원숭이, 검둥원숭이, 술라웨시곰 쿠스쿠스, 북술라웨시 바비루사, 셀레베스 들소, 술라웨시 혼빌 등이 서식한다.

병만족의 뜨거운 생존뿐 아니라 코타 마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자연 생태계가 펼쳐지는 〈정글의 법칙 in 코타 마나도〉는 오는 1월 6일(금) 밤 10시에 방송된다.

인터뷰
이 사람



러브FM 〈시사전망대〉 박진호 앵커

“경쟁 상대는 〈그알〉...
사회적 소수, 약자 보호가
〈시사전망대〉의 모토”

〈시사전망대〉를 맡은 지 넉 달이 조금 넘었다. 일과가 어떻게 되나?

새벽 4시에 기상해 출근한다. 6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오전에 PD, 작가들과 회의하고 오후에 좀 일찍 퇴근한다. 저녁에 발생하는 뉴스가 중요할 때가 많아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방송을 준비한다. 11시에는 자려고 한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향하는가?

SBS의 정통 시사토크 프로그램이다. 시대정신에 맞는 민주주의 구현, 사회적 소수·약자 보호가 프로그램 모토다. 고전적 저널리즘을 더 대중성 있게 추구하는 건데 이걸 진보 편향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전통의 〈그알〉과 경쟁해보자”고 반 농담을 했더니 정한성 PD가 진지하게 “그러자”고 해서 좀 놀랐었다. 익명의 네티즌, 전세버스 노동자, 한겨레와 조선일보 기자도 〈시사전망대〉에선 거침없이 섭외한다. 성역을 파괴한다기보다는 모른 척 막 넘나드는 식이다. 그 대신 상식과 논리를 항상 점검하고 제작진의 자기검증에 신경을 쓴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판단의 틀과 근거를 공급한다.

그동안 인터뷰한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생방으로 연결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거론했는데 당시는 촛불정국 초기라 심장이 뛰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돼가더라. 시야와 배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화여대 사태를 다룰 때 교수협회의 김혜숙 철학과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평소엔 방송 출연을 정말 싫어하실 노교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선뜻 불의에 맞서는 걸기를 보이시는 모습에 존경을 느꼈다. 세련된 출연자도 많지만 투박해도 진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시사전망대〉의 불을 밝혀준다.

모든 시사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신문을 정독하고, 종편을 비롯한 시사프로그램을 보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뉴스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소화해 합리적인 논리를 펼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아는 취재원

들, 전문가들과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기자로서 출입처에 집중하던 생활과 완전히 다르다.

인터뷰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소설가 김훈. 그의 책을 거의 다 봐서 묻고 싶은 게 많다. 그 다음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다.

경쟁 프로그램과 〈시사전망대〉를 비교한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진보 지향과 파격적인 구성으로 젊은 층과 서민들에 소구력이 크다. 진행자의 개성도 돋보인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CBS의 간판 프로그램답게 이슈 선점에 적극적이고 집요하다. 제작진 규모도 크다. 우리는 추적하는 중이다. 기사가 진행되고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통성과 신뢰감, 보수·진보 패권이 동시에 나와 입체적인 논리대결을 펼치는 '이슈토크'가 시사전망대만의 강점이다. 토크쇼다운 재미와 균형적 시각을 동시에 전달한다.

주말 〈SBS 8 뉴스〉를 진행할 때 반응이 좋았다.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타고난 앵커가 아니어서 항상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몇 번 있었다. 고비 때 운도 따랐다. 방송을 무섭게 생각하고 많이 긴장하는 단점이 어떤 때는 장점이 됐던 것 같다.

TV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팬들도 있다.

지금은 라디오가 제일 중요하다. 집중도가 매우 높고 일상을 파고드는 위력이 있다. 또 뉴미디어에 친화적이라 매체 생존력도 강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컴컴한 새벽에도 이슬처럼 많은 청취자들이 곳곳에 있다. 특파원 때 CBS 앵커, 스코트 펠리를 만났는데 “팩트(fact)를 계속 점검하고 지식을 늘려가며, 가슴(heart)에서 나오는 말로 방송하라. 사람들이 좋아하면 계속하고, 싫어하면 그만두라”하더라. 그도 선배에게 물려받은 말이라 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누구도 모른다.



인도네시아에 두 개의 SBS 채널 개국

● 24시간 SBS 콘텐츠 방송...
글로벌 문화 콘텐츠기업으로
한 걸음 더



지난 12월 29일(목) SBS는 인도네시아 레젤(현지 1위 홈쇼핑 채널) 방송사와 SBS 채널 개국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개국 예정인 SBS 채널은 SBS-IN 채널과 SBS-SHOP 채널 2개로, 세계 인구 4위의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 중 8천만 명이 확보돼있는 위성 및 케이블 채널이다. SBS 예능·교양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는 SBS-IN 채널은 SBS의 인기프로그램인 <런닝맨>, <스타킹>, <정글의 법칙>, <인기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TV 동물농장>, <모닝와이드>, <영재발굴단>, <좋은 아침> 등의 프로그램을 24시간 편성한다. SBS-SHOP(홈쇼핑) 채널은 SBS 콘텐츠에 담긴 PPL 제품 등을 판매한다. 이 같은 구조는 콘텐츠 수출뿐 아니라 CC(콘텐츠 커머스) 유통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 SBS 수익을 확실하게 담보한다. 또한, SBS와 레젤 양사는 인도네시아 내 각 지역 지상파 방송사(RTV, INTV 등)와 콘텐츠 공급을 추가로 협의해 시청자를 늘리기로 했으며, SBS는 현지 미디어그룹인 Emtek와 OTT 채널 공급 협의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다 폭넓은 젊은 층의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SBS 채널 개국은 사드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콘텐츠 유통과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이 어려운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 기업의 홍보 마케팅과 유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SBS 미디어비즈니스센터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를 넘어 이란, 남미 등 전 세계로 진출할 글로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SBS 공동제작, 베트남판 <오마베> 첫 방송 '대박'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베트남과 공동제작한 베트남판 <오마이 베이비>(이하 <오마베>)가 12월 18일 호찌민 최대의 지상파채널인 HTV2와 하노이 VTVC1을 통해 방송돼 동 시간대 2위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SBS와 현지의 라임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제작한 <오마베> 베트남 제목: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는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아 9%의 광고판매를 기록했으며, 타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과 화면으로 재미와 감동을 끌어냈다는 평을 얻었다. 또 방송직후 HTV2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된 베트남판 <오마베>는 조회수가 5만 건에 육박하는 등 화제를 모았고, 베트남 네티즌들도 "한국의 <오마베>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다. 다음 회가 더 기대된다"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현지 방송 관계자들 역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광고주와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켰다. 향후 시청률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제작사업팀은 베트남판 <오마베>의 성공적인 출발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방송시장에서 지속해서 글로벌 공동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운 우리 새끼>, 시청률과 각종 상 다 쥐었다!



여의도클럽 백중문 회장, 광승영 PD

<미운 우리 새끼>(연출: 광승영, 최소형)가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다. <미운 우리 새끼>는 12월 15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한국방송비평상' 시상식에서 예능 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 12월 27일(화)에는 여의도클럽이 주는 '올해의 예능상'을 받았다. 여의도클럽은 "세대를 뛰어넘은 공감 예능으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동 시간대 1위, 2049시청률 1위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진행자 산동엽이 12월 26일에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데뷔 26년 만에 대상을 받는 등 6개 부문을 <미운 우리 새끼>가 휩쓸어 그 인기를 여실히 증명하기도 했다.

'YMCA 좋은방송대상' 대상, 최우수상은 SBS

SBS의 교양 프로그램이 12월 21일(수) 서울 YMCA에서 열린 '제7회 YMCA 선정 좋은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편(연출: 안윤태)이 대상을 받았고, <SBS 스페셜> '바람의 학교'(연출: 한재신)가 최우수상을 받아 상위 두 개의 상을 SBS가 독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미스터리'는 지난해 10월 22일 방송 이후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개의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YMCA가 주최하고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7회 'YMCA 선정 좋은방송대상'에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DMB 등을 통해 방송된 영상 프로그램 74편이 응모했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7편이 시상대에 올랐다.

이석하 서울YMCA회장 직무대행, 안윤태 PD, 김정덕 PD



<그것이> '대구 희망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김두리 PD, 강성경 보조작가, 홍정아 작가, 김동민 PD, 이근별 PD

<그것이 알고 싶다> '가려진 죽음-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연출: 이근별)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10월)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가려진 죽음-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편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희망원의 인권침해 실태 및 운영 재단의 문제 등을 치밀하게 취재, 고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상식은 12월 15일(목)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공정방송은 생존의 문제”

●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불공정으로 오염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약속

지난해 12월 15일 노사는 ‘최순실 게이트 보도 참사에 대한 사족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보도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뉴스를 통한 대 시청자 직접 사과’를 안건으로 공정방송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는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오로지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해 나간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운영하는 노사 합의 기구다.

SBS 노동조합 윤창현 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는 공방협을 열게 된 의미는 다시는 과거와 같은 문제적 보도행태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보도준칙을 포함한 여러 합의들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



분을 가장 강력히 드러내 앞으로 공정방송을 위한 실천과 의지를 담보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공방협 개최 요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조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 박정훈 SBS 사장은 “SBS의 과거와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그것이 모자라 다고 생각하시면 또 하겠다. 공정방송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라며 공정방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준 보도본부장도 “그동안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객관적인 기사 가치에 따른 보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고 권력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도 책임자로서 반성을 하고 사과한다”며, 앞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공방협 논의 결과에 따라 앵커로 복귀한 첫날 <SBS 8 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대한 사과와 공정방송에 대한 약속을 선언했다.



공방협 회의에서 권영인 기자협회장은 “탄핵이 끝나고 대선 정국이 왔을 때 대선 후보자 검증,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인수위 단계의 검증, 또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우리 뉴스가 해 왔던 경험을 봤을 때 우려되는 바가 크다”며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SBS 보도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SBS 보도의 확고한 공정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표 SBS 노동조합 부분부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SBS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해 온 SBS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황 부분부장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으로 넘어간 인사들이 언론의 본령에 대한 무지와 개인의 이익, 또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근본적으로 SBS가 시청자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내부 구성원 조차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사장은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실천하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공정방송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 12월 15일에 열린 공정방송실천협의회 결과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사보를 게재합니다.

SBS-보건복지부 가족문화개선 캠페인 MOU 체결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공동캠페인



SBS와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12월 22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업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정훈 SBS 사장을 비롯해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준 보도본부장, 전수진 편성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7년 두 기관은 우리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실천,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 함께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SBS-여주시 오픈세트장 조성 및 운영 MOU 체결



SBS와 여주시는 12월 26일(월) 여주시 시청 시장실에서 원경희 여주시장과 박정훈 SBS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오픈세트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BS와 여주시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7-1번지 일원 약 264,820㎡에 이르는 땅에 방송제작 시설, 오픈세트장, 실내 공연장, 드라마 박물관, 전시 체험 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

성하는 한편, 오픈세트장 사업과 연계한 지역 문화축제의 육성 발굴,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담담하지만 진실된, 투박하지만 정겨운

<최백호의 낭만시대>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일 오후 10:05-12:00



각박한 현실에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 때, 공해 가득한 세상에서 일상이 화생방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막연한 향수를 느낀다.

매일 밤 추억의 노래로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최백호의 낭만시대>는 그런 향수를 달래주는 프로그램이다. 바쁜 생활에 접어놓았던 그리움, 낭만의 여유를 펼쳐보는 시간이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니만큼 복잡한 구성보다 중·장년에게 익숙한 노래와 편안한 이야기로 함께 한다.

매일 코너 ‘밤의 창가에서’는 진실한 삶의 이야기, 돌아가고 싶은 시절의 추억, 고단하고 애잔한 일상이 담긴 청취자들의 편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내 이야기 같은 이웃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다.

화요일 ‘낭만라이브클럽’은 뮤지컬 가수 이정렬,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기타리스트 진수영이 출연해 청취자들이 신청하는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준다. 이들은 그 어떤 노래도 즉석에서 호흡을 맞춰 연주하는 뛰어난 실력으로 라이브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려 달라는 청취자 문자가 쏟아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첫 곡 퀴즈’ 또한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장수 코너다. 목요일의 4부 첫 곡을 아리송한 DJ의 힌트와 2부 끝 곡의 힌트만으로 추측해서 맞히는 코너인데, 청취자들에게 ‘혈압 오르는 코너’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중독성 있는 코너’로 불리기도 한다. DJ 최백호의 장난기 어린 재치가 빛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낭만시대> 애청자들은 DJ를 ‘백호 형’, ‘백호 오라버니’, ‘백호 아저씨’라고 부른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듯 DJ에게 힘든 사연을 털어놓는 청취자들은 백호 형의 “용기 내십시오”라는 한마디,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 마디에 위로를 받는다.

투박한 사투리, 느릿하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는 DJ의 목소리처럼 <최백호의 낭만시대>에는 잠시 걸음을 늦춰보는 여유와 낭만이 있다.

-라디오센터 라디오1CP 소속 이정은 PD